

기암괴석 천년 역사 새긴 ‘월출산 일원’ 명승된다



월출산 구름다리와 기암괴석

국가유산청 명승 지정 예고...의견 수렴 뒤 지정 심의

국가 제의·불교문화 등 역사·민속·지질 가치 두루 갖춰

우뚝 솟은 기암괴석의 봉우리들이 장관을 이루는 월출산 일대가 국가유산이 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과 강진군에 걸쳐 있는 ‘월출산 일원’을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예고했다.

월출산은 예부터 빼어난 경관으로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려왔다. 천황봉과 구정봉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바위들이 병풍처럼 펼쳐진 산세가 이롭나 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월출산은 1145년께 편찬된 삼국시대 역사서 ‘삼국사기’에 월나군의 ‘월내악’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돼

있다. 국가유산청이 운영하는 국가유산포털은 지리서 ‘동국여지승람’을 인용해 신라 때에는 월나산, 고려 때에는 월생산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월출산은 자연경관뿐 아니라 오랜 역사와 신앙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월출산 천황봉은 통일신라 시기부터 나라의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산악 신앙과 국가 의례의 전통이 이어진 영산으로 꼽힌다.

신라 말 승려이자 풍수의 대가로 알려진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하는 도갑사와 무위사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중턱에는 국보 마애여래좌상이 남아 있다.

월출산의 아름다움은 옛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국가유산포털에 따르면 조선시대 시인 김시습은 월출산에 대해 “남쪽 고을의 한 그림 가운데 산이 있으니, 달은 청천에서 뜨지 않고 이 산간에 오르더라”고 예찬했다.

고려 문인 김극기도 “월출산의 많은 기이한 모습을 실컷 들었거니, 그늘지며 개고 추위와 더위가 서로 알맞도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국정봉에 위치한 9개의 우물 등 지형과 관련된 여러 신앙과 설화도 전해 내려온다. 이 때문에 월출산 일원은 인문지리와 민속학 측면에서도 가치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월출산 일원은 지질·생태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월출산은 평야에서 급격히 솟아오른 독립 화강암 산괴로, 화강암 풍화 지

형이 다양하게 발달했다. 별레를 잡아먹는 식충식물 등 특이 식생도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승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1970년대 안동댐 건설 당시 수몰 위기를 피해 옛이야기를 간직한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을 이날 보물로 지정했다.

향교는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거나 유학을 가르치던 공간이다. 국가유산청은 예안향교 대성전에 대해 “수몰 위기 속에서도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왔으며, 조선시대 유교 교육과 향촌 사회 조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건축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푹푹 찌는 열대야...광주 도심 피서지로 변신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 도심에서도 시원한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인기다. 광주의 여름밤에는 소중한 사람과 캠핑·영화·산책·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소들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강물따라 숲길따라 하룻밤 캠핑

광산구와 북구가 맞닿는 곳에서 영산강을 따라가면 숲과 강물을 구경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광주시민숲 야영장’을 만날 수 있다.

광주시민숲 야영장은 텐트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일반 야영장 38면과 차박을 즐길 수 있는 자동차 야영장 19면 등 총 57면 규모로, 화장실·취사장·샤워실·전기시설을 갖추고 있다.

1면당 최대 이용인원은 4~5인(유아포함시 최대 6인)이고, 이용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다.

하루 시설 이용료는 날짜에 따라 1만~2만원이며, 예약은 통합특별시 바로예약 누리집(https://www.gwangju.go.kr/reserve/parkBscList.do)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곳에는 오는 17일까지는 주간(오후 5시)에 광주시민숲 물놀이장도 운영돼

캠핑장·자동차극장·천변 산책로 등 떠나는 밤나들이
숲·강물·야간 물놀이까지 합리적 가격에 즐기는 여유
야구장·별밤미술관 등 취향 따라 만나는 도심보물들

더욱 시원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서구 주도급캠핑 인 광주, 북구 패밀리랜드 카라반 캠핑장, 남구 송촌보 캠핑장, 광산구 국민여가 친환경 오토캠핑장 휴파크 등에서 여유로운 도심캠핑을 만끽할 수 있다.

◇영화와 공연으로 특별한 피서를

광주지역 소극장들은 오는 15일까지 ‘제29회 광주소극장축제’를 열어 9편의 작품을 선보인다. 월요일인 10일을 제외하면 매일 저녁 연극·음악회 등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는 11일부터 13일까지 ‘제37회 광주음악제’가 열린다. 음악제는 ‘음악으로 꿈을 잇다’를 주제로 공연 기간 오후 7시30분부터 다채로운 선율을 선보인다.

광주지역의 유일한 자동차극장인 ‘광주자동차극장’에서는 대형 스크린 앞에 주차하고 자동차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자동차극장 특유의 설렘을 느낄 수 있

다. 운영 시간은 매일 저녁 7시20분부터이다. 인근에 광주패밀리랜드와 우치동물원이 있어 함께 즐길 수 있다.

◇도시 불빛·물소리와 함께 야경산책 특별한 계획 없이 시원한 여름밤을 보내고 싶다면 광주 곳곳의 호수와 강변 산책길을 찾아갈 수 있다.

도심 한가운대를 흐르는 광주천은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가 이어져 여름밤 시민들의 발길을 이끄는 산책 명소다.

해가 지면 물결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사돼 운치를 더하고, 곳곳에 마련된 정자와 벤치에서는 가볍게 휴식을 즐길 수 있다. 서구 운천저수지수변공원·풍암호수공원과 북구 양산호수공원 등 동네 호수공원도 낭만적인 여름밤을 보내기에 제격이다.

특히 광산구 수완호수공원과 쌍암공원 인근에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야간공공전시공간인 ‘별밤미술관’이 운영돼 무

로 미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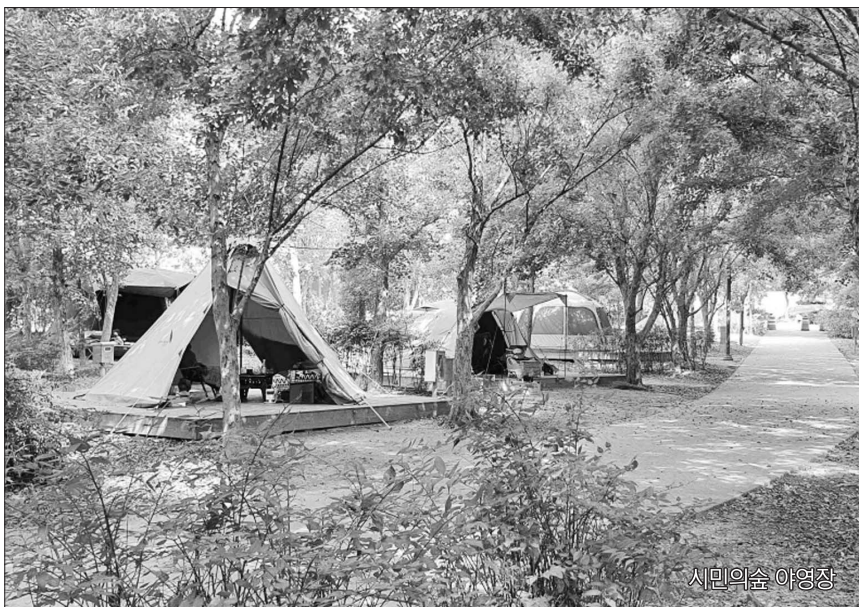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도심 속 야외시스 ‘야간 바닷분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워터파크 ‘야간 바닷분수’도 열대야 피서지로 안성맞춤이다.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앞 중외공원역 바닷분수, 일곡동 들샘어린이공원 바닷분수, 신용빛고을근린공원 바닷분수는 시원한 물줄기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는 9월 20일까지 운영되며 한여름의 열기를 식힐 계획이다.

동구 푸른길공원 바닷분수는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해 저녁 산책길에 시원한 청량감을 선사한다. 동구 푸른길공원 바닷분수는 정오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매시간 40분 가동·20분 휴식을 반복한다.

한송화 관광도시과장은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도심 가까운 곳에서 열대야를 잊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알찬 명소들이 광주 곳곳에 마련돼 있다”며 “시민들과 광주를 찾은 방문객들이 도심 속 캠핑, 야간 산책, 문화 체험 등을 통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시원하고 낭만적인 여름밤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시민숲 야영장



수완호수공원

아카데미홀 대관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